2천 년 불교유적, '방만 행정'에 훼손 위기

파키스탄 '반 파키란' 발굴 완료 후 보존작업 실시 안해

파키스탄 불교유적지 '반 파키란(Ban Faqiran)'이 정부의 방만한 행정으로 보존공사조차 착수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 마르갈라 언덕에 위치한 반 파키란은 기원전 2세기 경 건축된 불교 유적터다. 발견 당시 사원 뿐 아니라 석회석 탑, 물탱크, 6개 동전 및 4개 쇠 화살촉 등이 함께 발굴돼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탑으로 추정되는 석회 건물은 사각형태로, 한 쪽 벽 길이만 10m에 달한다.

파키스탄 영자지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9월 26일(현지시간) "반 파키란 불교 유적지가 발굴 완료 이후 보존책이 없어 문화재 부식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현재 반 파키란은 자연적 마모와 지역민들 접촉 등으로 부식이 시작됐다.

발굴총괄책임자 무하마드 아리프 박사는 "올 3월 발굴이 완료된 2000년 역사의 반 파키란 유적지는 고고학박물관부가 보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방치된 채 부식이 심각하게 진행됐다"며 "정부는 자연 마모, 주민 접촉 등 훼손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고학박물관부는 2010년 4월 18차 헌법 개정 후 첫 책임 조사로 반 파키란 발굴을 맡았다.

자연 부식 · 주민 접근 등으로 훼손
4월 예산 받았지만 '무용지물'
"하루빨리 보존책 마련해야"

지난해 4월 국민문화유산기금(the National Fund for Cultural Heritage, NFCH)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4개월 후 발굴에 착수했다. 무하마드 박사는 "고고학박물관부는 2백만 루피(한화 약 22억) 예산을 할당받았지만 무용지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유물 조사 및 규명, 유적지 인근 터에 대한 조사까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발굴된 유물은 이슬라마바드 박물관에 보관 중인 상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 측은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반 파키란은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매우 자랑스러운 유적지"라며 "최근 고고학박물관부 문화재권고위원회에 보존대책 마련 및 물탱크 주변 심층 조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고학박물관부 문화재권고위원회엔 연방운영위원회 소속 파루크 사와티 박사, 슐레만 샤아 정보부 장관, 무하마드 아리프 박사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방만한 행정 속 훼손 위기에 놓인 '반 파키란' 불교 유적지.

사진출처=익스프레스 트리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현장 '반야심경' 초판본 새긴 비석 발견"

운거사, 석각 내용 해석 토대로 주장

중국 운거사가 현장 스님이 한역한 〈반야심경〉 초판본이 새겨진 석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사이트는 9월 26일(현지시간) "북경시 방산구 운거사에 소재한 석각이 현장 스님이 한역한 '반야심경' 초판본으로 판명 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석각은 현장 스님 사망 3년 전인 기원후 661년 조각된 것이다.

〈반야심경〉은 불과 260자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경문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문은 산스크리트어로 현장 스님의 번역본이 가장 많이 독송된다.

따라서 운거사 석실서 보관돼 온 이 석각이 현장 스님의 〈반야심경〉 초판본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현장 스님의 한역(漢譯)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 및 학술계에선 진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운거사 측과 전문가들은 석각에 새겨진 '삼장법사인 현장이 임금의 조칙을 받들어 번역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번역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운거사는 베이징시 팡산구에 위치한 고찰로, 약 1400년 전 수나라 시대 창건됐다. 운거사 창건주인 진관 스님이 당시 불교를 탄압하려던 위 · 주나라 위협에 대비해 경구 조각을 시작, 현재 총 글자 수 3억 자, 경전 3,572권 분량의 석각을 제작 보관 중이다.



운거사 석실서 보관돼 온 '반야심경' 석각.

사진출처= 중국 관영 사이트

박아름 기자

인도 데칸대, 불교 고고학 수업 개설

"불교문학과 고고학 잇는 가교 역할 기대"

인도의 데칸대학교가 인도서는 처음으로 불교 고고학 수업을 연다.

관련 학자와 연구자들은 불교 고고학 수업이 불교문학과 고고학적 증거를 찾는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도 언론 '푸네미러'에 따르면 불교 고고학 수업은 4개월 코스로, 런던 대학에서 동남아고고학을 가르치는 줄리아 쇼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된다.

줄리아 쇼 교수는 인도 중부, 마디야 프라데슈 주의 동(東) 마르와지방에 있는 불교 유적을 조사했으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캠프리지 재학중 불교 사원을 주제로 많은 연구를 했다.

데칸대학 고대인도역사문화 슈리칸 간비르 조교수는 "이번 수업은 2003년 캠프리지 대학에서 고고학 석사 과정을 마친 줄리아 쇼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비르 조교수는 불교 고고학 과정 개설을 통해 인도 전역의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리큘럼은 고대 불교 대학과 사원이 있던 날란다(Nalanda)와 5~12세기의 연와조 불교사원 유적이 있는 라트나기리(Ratnagiri)와 오디샤(Odisha) 지역의 불교 유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또한 불교사원과 불교의 전파가 미치는 사회경제, 무역 등 전반적인 지식들도 배울 계획이다.

불교 고고학 과정은 2017년부터 고고학부내에 신설되어 운영된다. 또한 데칸대학은 내년 '불교 고고학과' '문화유산 보존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도의 데칸대학교가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불교 고고학 수업을 열어 진행한다.

사진출처=edunts.com

바산트 신데 데칸대 부총장은 "고고학 분야에서 역사적 문헌에 의존하기보다 물질적 증거를 집중 연구해야 더 정확한 역사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학과 개설이 인도 역사와 불교 고고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람 테이싱 사라오 델리대학 불교연구소 교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정보는 고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문헌적 자료만으로는 역사를 만들 수가 없다"며 "인도의 고고학적 자료는 불교 이해를 기본으로 해야 하지만, 불교학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대학은 고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난 싱 고타마 붓다 대학의 불교학과장은 "불교의 쇠퇴과정은 고고학지역을 추적하면 배울 수 있다"며 "초기 선사시대 등의 유적현장에 집중해 불교 역사를 추적할 것이며 이번 불교 고고학 과정을 통해 다차원의 측면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답사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도고고학회(ASI;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에서 인도 역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유적지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안내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불교고고학과 개설은 향후 인도 공공 지역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선두 할 것으로 본다.

아난 싱 학과장은 "많은 전문가들은 산치(Sanchi)지역 60km 반경에 사원을 비롯한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지역 정부도 관광사업에 혈안이 되어 고고학 연구는 등한시 하고 있다. 과학에 근거한 고고학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비행 승려' 다룬 영화, 오스카 출품

"불교 모독"이란 불교계 반발 및 정부 검열 불구

마을 소녀와 사랑에 빠지는 등 계율을 저버린 승려 이야기를 다룬 태국 공포영화가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에 출품돼 논란이다.

영문 잡지 'GLOBE' 9월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태국영화협회는 내년 2월 개최될 제89회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부문 경쟁작으로 불교 배경 공포영화 '아파띠(Apatti, 2015)'를 출품했다. 아파띠는 아버지의 강요로 승려가 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은 승려 생활 중 사춘기 시절 한 마을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후 그는 만취 상태로 폭력을 휘두르고, 불상의 머리를 만지는 등 승려 본연의 신분과 엇나간 생활을 지속한다.

이러한 장면에 대해 태국 불교계는 '불교에 대한 모독'이라 간주하고 크게 비난했다.

이에 정부까지 가세해 지난 8월 검열을 실시, 상영이 지연됐다. 그러나 태국민들이 영화 상영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10만 명 이상이 청원을 벌인 끝에 제목을 변경하고 약 2분 정도의 분량을 삭제해 상영하게 됐다. 아파띠는 태국 박스오피스서 5천만 바트(한화 약 16억)가 넘는 흥행성적을 거뒀다.

'방콕 포스트'서 활동 중인 영화 비평가 콩 리트디(Kong Rithdee)는 "승려를 소재로 다룬 영화는 태국 영화사서 역사가 깊다. 승려를 재밌거나 신성스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도덕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내용은 문제될 수 있다"며 "이번 오스카 출품을 두고 '감독의 예술적 표현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비행 승려' 이야기를 다룬 태국 영화 '아파띠(Apatti, 2015)'가 제89회 오스카 아카데미 경쟁작으로 출품돼 논란이다.

사진출처=GLOBE

박아름 기자

족첸(대원만) 수행의 안내서!



아로 예세 중내의 족첸 수행 지침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결

10세기 티벳불교의 위대한 성취자이자 스승인 아로 예세 중내의 핵심 가르침!

티벳불교의 가장 높은 단계의 가르침인 족첸 수행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설명! 어떻게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마음의 본성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가? 근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홉 단계의 수행법을 통해 모든 이들을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

켄첸 빨덴 셰랍 린포체 • 켄뽀 체왕 된걀 린포체 저 / 고수연 옮김 / 국판 / 256쪽 / 값 14,000원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수승한 법화경 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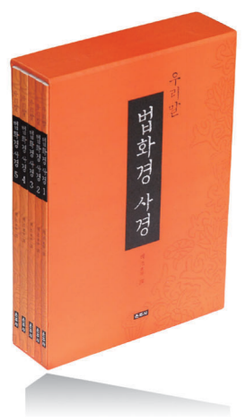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전5권)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값 40,000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750쪽 / 값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